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Market Insight
2026.4.20

Mirae Asset Research AI

본 조사분석자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본 자료 마지막에 안내된 중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수]
김주연
Jooyoun.kim@miraeasset.com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호르무즈 개방, 미국증시 사상 최고가 랠리

- 미국증시 3주 연속 상승..나스닥·S&P500 사흘째 사상 최고가 경신
-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힘 받은 '리스크-온'
- 주말 호르무즈 긴장 재고조..미국-이란 협상 여부 불투명

Summary

미국증시 상승: 나스닥·S&P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

4월 17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 주요 지수는 일제히 1%대 상승세로 거래를 마침.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상업 선박의 통행이 전면 자유화됐다고 선언한데 따라 국제유가가 급락하며 시장 상승을 견인.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1.79% 상승한 49,447.43에 거래를 마쳤고, S&P500 지수는 1.20% 상승한 7,126.06에 마감. 나스닥 지수는 1.52% 상승한 24,468.48에 거래를 마쳤으며 중소형주 지수 러셀2000은 2.11% 상승한 2,776.90에 마감. S&P500은 사상 처음으로 7,100선 위에서 거래를 마쳤으며 이로써 S&P500과 나스닥 지수는 사흘 연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함. 나스닥 지수는 13거래일 연속 상승해 1992년 이후 최장 기간 연속 상승세를 기록함.

3대 지수 모두 주간 기준 3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우지수는 지난 한 주간 3.19%, S&P500 지수는 4.54%, 나스닥 지수는 6.84% 상승함.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2.56% 하락한 17.48에 마감. .

(다우 +1.79%, 나스닥 +1.52%, S&P500 +1.20%, 러셀2000 +2.11%)

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전면 자유화"

이 날 시장이 강하게 상승한 가장 결정적인 배경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전면 개방 선언.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부 장관은 레바논에서 휴전이 발표됨에 따라 휴전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모든 상업 선박의 통행이 전면적으로 자유화됐다고 선언함. 레바논은 전날 이스라엘과 열흘간 휴전에 합의했으며 때문에 이 휴전이 유지되는 기간, 즉 미국 동부시각 기준 26일까지는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으로 기대.

여기에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이란이 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은 동결했던 이란 자금 200억 달러를 해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합의에 매우 가까워졌다. 걸림돌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도.

다만 이날 로이터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요건에 여전히 상당한 간극이 있다"는 이란 고위 관리의 말을 전했고 레바논과 휴전에 합의한 이스라엘은 휴전한지 채 24시간도 안돼 레바논 남부를 공습해 1명의 사망자를 냈음. 즉 시장에 확산된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

황이 깔끔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벌어지고 있음.

다시 막힌 호르무즈..2차 회담 '시계 제로'

여기에 주말을 지나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보다 더 높아졌음. 현지시각 18일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성명을 통해 미국이 휴전 협정 위반에 해당되는 이란 해상 봉쇄를 지속해 이 날 저녁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했다고 밝힘. 이들은 페르시아만과 오만해의 어떤 선박도 움직이지 말 것을 경고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접근하는 것은 적과의 협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힘. 이란은 실제 일부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을 감ㅎ생해, 영국 해사 무역기구는 이란 군부가 재봉쇄 발표 이후 유조선과 컨테이너션 등에 대한 오만 해상에서의 공격이 있었다고 보고함. 이에 친이란 성향의 예멘 후티 반군은 홍해의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에 대한 봉쇄도 가능하다며 이란의 움직임에 힘을 실었음.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미국 대표단이 이란과의 협상을 위해 파키스탄으로 가고 있다고 밝힘. 그는 "우리는 아주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안을 했고 그들이 받아들이기를 바라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 미국은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교량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것"이라고 압박함.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재봉쇄에도 앞서 2주간의 시한으로 합의했던 휴전이 끝나는 21일 이전 이란과 추가 협상을 계획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이란의 군부와 강경파를 대표하는 타스님 통신은 19일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은 현재 협상 대표단 파견을 결정하지 않았으며 미국의 해상 봉쇄가 지속되는 한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보도. 이후 이란의 국영 통신 IRNA는 "미국의 과도한 요구와 비현실적 기대, 끊임없는 입장 변화와 휴전 위반으로 간주되는 해상 봉쇄 지속으로 이란 정부는 미국과의 2차 협상에 이ㅐㅁ하기를 거부했다"고 전함.

이런 가운데 미군은 대이란 해상 봉쇄를 뚫으려던 이란 화물선을 저지하고 발포한 뒤 나포한 것으로 알려져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긴장과 그로 인한 협상에의 불확실성과 시장 변동성은 주초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짐.

월요일 아시아 증시 개장 이전 유가 선물과 달러 지수는 상승하고 주가 지수 선물은 하락 중이며 암호화폐도 약세 전환.

이번주 미국-이란 협상, 기업 실적 등이 변수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시장은 초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이후 위험 자산 선호가 다시 확산될지 여부, 주 초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이 재개될지 여부를 주요 변수로 반영할 전망. 이외 23일로 예정된 SK하이닉스 실적, 22일로 예정하고 있는 테슬라와 램리서치 실적 등이 지정학적 변수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잠재울 변수가 될지 주목. 월요일 중국에서는 기준금리 격인 LPR 금리가 결정될 예정.

특징종목

반도체, 소프트웨어 동반 상승

애플(+2.59%), 엔비디아(+1.68%), 브로드컴(+2.02%), 마이크로소프트(+0.60%), 구글 알파벳(+1.68%), 메타 플랫폼스(+1.73%), 아마존닷컴(+0.34%), 테슬라(+3.01%) 등 빅테크 전반이 강세로 시장 상승을 견인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43% 상승하는 등 반도체주가 대체로 강하게 올랐고, 이 날은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오라클과 어도비 정도를 제외하고는 동반 상승.

브로드컴(+2.02%), 텍사스 인스트루먼트(+3.01%), 온 세미컨덕터(+3.85%), 램 리서치(+2.54%), 시게이트(+3.00%), 팔란티어(+2.54%), 데이터 도그(+2.54%), 인튜이트(+1.59%), 세일스 포스(+0.51%).

특히 올들어 내내 부진한 흐름을 보였ㄱ던 사이버보안 및 기업용 소프트웨어 관련 주식의 회복세가 돋보임. 마이크로소프트만 해도 연초 이후 20% 가까이 하락했지만 지난 한 주 13% 회복. 제프리스는 소프트웨어 주식의 최악의 상황은 지났을지 모른다며 앤트로픽과 오픈AI가 업계 전체를 망칠 것이라는 생각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 진단.

유가 급락: 에너지주↓, 여행·항공주↑

업종별로 의료건강과 산업, 임의소비재와 기술, 필수소비재, 부동산 등이 1% 이상 상승했지만 에너지는 3% 가까이 하락함. 이란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휴전 기간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겠다고 밝히며 국제유가가 급락하자 에너지 관련 주식 주가는 크게 하락. APA(-5.70%), 발레로 에너지(-7.48%), 옥시덴털 페트롤리엄(-5.42%), 코노코필립스(-4.55%), 엑슨모빌(-3.65%), 셰브론(-2.21%).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상선 이동이 자유화되면 비료 원료의 수급도 정상화돼 비료 가격 상승을 제한할 것이란 전망으로 화학, 비료 관련 종목들은 약세. 인트레피드 포타시(-10.41%), 다우(-10.82%), 모자이크(-0.65%), CF 인더스트리스(-9.65%).

다만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전면 개방되며 유가가 하락하고 양측의 협상 성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건 여행, 항공주에는 비용 하락과 수요 상승에 대한 기대로 이어져 여행, 크루즈, 항공주에 호재로 반영. 카니발(+6.99%), 노르웨이지언 크루즈 라인 홀딩스(+4.79%), 익스피디아 그룹(+4.48%),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3.22%), 메리어트 인터내셔널(+4.28%), 에어비앤비(+2.71%), 델타 에어라인스(+2.62%),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5.09%),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7.12%).

비트코인 강세, 스트래티지 다시 '수익권'

비트코인 자산 관리 회사 스트래티지(+11.80%)가 급등. 이 날 비트코인이 7만 7천 달러를 돌파하며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보유 자산 가치가 다시 플러스 영역으로 돌아온 점이 주

가 상승 요인. 지난 2월 초, 스트래티지는 대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평균 매입 가격인 7만 6052달러 알래로 떨어지며 급락했던 바. 코인베이스 글로벌(+3.26%), 로빈훗 마케츠(+4.49%) 등 이외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관련 종목들도 동반 강세.

이외 개별 특징주

스트리밍 거대 기업 넷플릭스(-9.72%)는 실망스러운 실적 가이던스에 주가 하락. 공동 창업자이자 넷플릭스 회장인 리드 헤이스팅스가 임기가 만료되는 6월 이사회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힌 점도 주가 하락에 영향.

역시 전일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알루미늄 생산 업체 알코아(-6.80%)는 전분기 실적이 매출과 이익단에서 모두 시장 기대를 하회한 가운데 큰 폭 하락.

전일 2023년 이후 최대폭 상승했던 알버말이 이날은 급락. 베어드는 알버말에 대한 투자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에서 '중립'으로 하향하고 목표가도 현재가보다 낮은 210달러로 제시. 베어드는 알버말이 S&P500이 연초 대비 3% 상승한 것과 대조적으로 약 47% 상승했다며 최근의 강세는 부분적으로 강력한 수요 전망, 그리고 동종업체 CATL의 실적 덕분이라고 설명. 회사측은 다만 이미 주가에 반영된 수요 개선으로 인한 긍정적 영향보다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 알버말(-8.29%), 시그마 리튬 코퍼레이션(-4.73%), 리튬 아르헨티나(-4.45%), 아틀라스 리튬(-1.01%) 등이 전일의 상승을 뒤로 하고 하락 전환.

크리티컬 메탈스(+35.49%), 그린란드 정부가 탄브리즈 마이닝의 지분 50.5%를 크리티컬 메탈스에 양도하는 것을 승인한 후 주가가 급등. 크리티컬 메탈스는 이로써 탄브리즈 마이닝 지분을 92.5%까지 늘림.

에어백, 안전벨트, 스티어링 휠 제조업체 오토리브(+6.82%)는 1분기 주당 순이익이 월가 컨센을 크게 웃돌아 주가 급등.

반도체 공정 제어 장비 제조사 온투 이노베이션(+8.84%), 1분기 잠정 매출이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하며 주가도 강세. 스티펠은 온투의 투자의견을 '보유'에서 '매수'로 상향하고 목표가를 350달러로 높임.

선구매 후 결제(BDS) 서비스 업체 어펌(+7.00%)의 주가가 모건스탠리의 최고 추천주 선정 이후 급등. 모건스탠리는 어펌의 실적 개선 잠재력이 크며, 민간 대출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는 구간 최근의 하락으로 높아진 밸류에이션 매력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유가 급락에 국채금리 하락

미 국채 금리는 단기물을 중심으로 일제히 하락. 호르무즈 해협 통행에 대한 제한을 한시적으로 해제한다는 이란의 발표에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강하게 회복, 금리 인하로 이어짐.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7.8bp 화락한 3.700%를 기

록했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6.5bp 하락한 4.244%를 기록. 만기가 가장 긴 30년물 금리는 4.5bp 하락한 4.884%를 기록. 10년물과 2년물 금리 차이는 전 거래일 대비 1.3bp 상승한 54.4bp로 지난달 중순 이후 최고를 기록.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이 날 연준이 오는 12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50% 내외로 전장 대비 크게 낮췄으며 금리가 25bp 이상 인하될 가능성을 49% 내외로 크게 높였음.

달러가치 제한적 약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가치는 전 거래일의 반등을 뒤로 하고 재차 하락 전환.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선언과 달러의 하락 전환이 오버랩 됐음. 다만 이스라엘의 레바논 남부 공습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이란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자 낙폭은 축소. 이 날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98.193으로 전장 대비 0.013% 하락.

유로-달러 환율은 0.104% 하락했고 파운드-달러 환율은 0.075% 하락함.

달러-원 환율은 야간거래에서 전일 서울 외환시장 주간 거래 종가 1,483.50원 대비 20원 이상 하락한 1,460.0원에 거래를 마침.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를 감안하면 1,465.80원 기록.

국제유가 10% 이상 급락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선언에 상품 시장에서 국제유가는 10% 이상 크게 하락.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 대비 11.45% 하락한 배럴당 83.85에 마감해 최근월물 종가 기준 지난달 10일 이후 약 5주만에 최저를 기록. 6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9.1% 급락한 배럴당 90.38달러에 마감해 5주만에 최저치를 기록함. 유럽 천연가스 시장의 벤치마크인 네덜란드 TTF 선물 근월물은 7.2% 급락.

금은 달러 약세와 국채 금리 하락에 상승. 은과 플래티넘 등 여타 귀금속도 동반 강세. 최근 작황 우려에 상승했던 옥수수와 대두 등 농작물은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며 하락.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